

1031(월) 요한복음 7-9장 세상의 빛이신 예수

초막절은 출애굽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(7:1).

특히 광야에서 <물>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
농사를 위한 비 또한 내려주시길 기원하는 절기였습니다.
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사장을 필두로 행렬을 지어
실로암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예식을 행했습니다.

(레23:34-36)

“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
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
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(7:37-3, 사12:3, 44:3)”
하나님께 물을 간구하는 절기에 <오라!>하신 것은
예수께서 생명주실 주님임을 뜻합니다(7:39, 성령).

초막절에는 <빛의 예식>들도 거행되었습니다.
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
여인의 뜰에 불을 밝히고 횃불을 들어 춤쳤습니다.

“나는 세상의 빛이니(이름 ㉞) 나를 따르는 자는
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(8:12)”
예수님은 여인의 뜰, 연보 궤 앞에 서서(8:20)
어둠 속, 빛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.
불기둥에 임했던 주의 영광이 예수께 임했습니다.

생명수 되신 예수님은 해갈의 기쁨을 주시며(4:10,14).
빛이 되셔서 영육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(9:7,17,33,38, 표적 ㉞).
바리새인들은 눈 떴으나 눈 먼 자들처럼(8:19,47,55,9:16),
하나님도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(사6:9-10).

예수님 안에서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(8:40,44-45).
참 자유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(8:32,36,51).

나는 예수님의 빛으로 눈 뜬 자입니까?

- 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자유하게 되었습니까?
- ② 주님의 빛이 나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요한복음 7-9장